

# 꿈바당책장

## 바르셀로나, 지금이 좋아

어린 시절 저는 장래희망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어느 날은 글썽스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몰랐어요. 다만 일기를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책을 함께 나눠 읽으며 생각이나 느낌을 편지에 써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작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초중고 12년 동안 결석이나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민어지시나요! 대학교 수업도 거의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남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십대 이십대를 착실하게 보냈어요. 마치 정답에 동그라미를 치듯 말이에요.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나는 동안 꿈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그 순서를 어기게 돼요.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미 여행을 떠났거든요. 남미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회사에서 일 년에 며칠 주는 짧은 휴가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남미 여행을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꿈이었던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았더니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정해진 길을 벗어나보니 점점 겁이 없어졌어요. 남미 여행을 다녀와 제주도로 이사해서 지내다가 바르셀로나로 가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곳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 곳은 고를 수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바르셀로나는 유럽 남쪽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건축가 가우디의 건물들로 유명한 곳이지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줘요. 제주도에 살면 서울에 살 때보다 날씨의 변화에 민감해져요. 제주는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섬이고, 그에 따라 바다와 산의 색이 달라지니까요. 오늘 한라산이 보이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반면 바르셀로나는 날씨가 아주 좋은 도시예요. 매일 매일이 쾌청한 날의 제주도 같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요. 오더라도 금방 그쳐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요. 어느 날 친구가 그랬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일단 집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정말 그래요. 일단 영차 힘을 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파란 하늘 아래를 천천히 걸어요. 조금만 걷다보면 테이블을 바깥에 내어 놓은 카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곳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김없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매일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은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끼게 돼요. 아니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다른 걸 보게 되지요. 대체로 기분이 좋았던 내가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경험한 것,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에 대해 글을 썼어요. 그렇게 나온 책이 <바르셀로나, 지금이 좋아>입니다. 지금 당장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에서 배웠거든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집 근처에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가고, 앞집에 사는 귀여운 강아지에게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모두 찾기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그것들을 찾아나서는 거죠. 눈치 채셨죠? <바르셀로나, 지금이 좋아>라는 책은 단순히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예요. 내가 좋아하는 도시에서 살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기분 좋게 지낸 이야기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간 이야기예요. 그 곳은 꼭 바르셀로나가 아니어도 될 지도 몰라요.



### 정다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네이버(주)에서 8년간 직장 생활을 한 후 퇴직해 남미 여행기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 제주도민 인터뷰집 <제주에서 뭐하고 살지?>, 바르셀로나 생활기 <바르셀로나 지금이 좋아>를 썼으며, 근간으로 <배려의 식탁, 제주>가 있다. 제주에 살며, 걷고 보고 듣고 쓰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어제 읽은 책①

## 긴 여행 : 평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프란체스카 산나 글·그림/차정민 옮김/풀빛/청구기호 유아 843 산192ㄱ



<긴 여행>은 난민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어린 소녀의 시선으로 난민 가족이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가족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빠를 앓아갔고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엄마는 낯선 도시들과 숲과 동물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떠나자, 전쟁이 없는 곳으로.'

전쟁으로 인해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고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떠난 두 아이와 엄마, 난민 가족이 겪은 긴 여정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고된 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우리에게 여행이란 일상의 탈출을 의미하지만, 난민 가족에게는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찾아 떠나는 고단하고 기나긴 여정입니다.

정들고 익숙한 모든 걸 뒤로 한 채,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곳으로.

그들은 왜 이토록 험한 여행을 하는 걸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긴 여행>으로 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강한 바람을 느끼길 바랍니다."

어제 읽은 책②

##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 착한 사회를 위한 공정무역 이야기

한수정 글/송하완 그림/파란자전거/청구기호 326.2 한56ㄱ



여러분은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열심히 일해도 왜 가난할까요? 불공정한 무역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세상,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책은 공정무역 전문재단 '아름다운커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살아 있는 공정무역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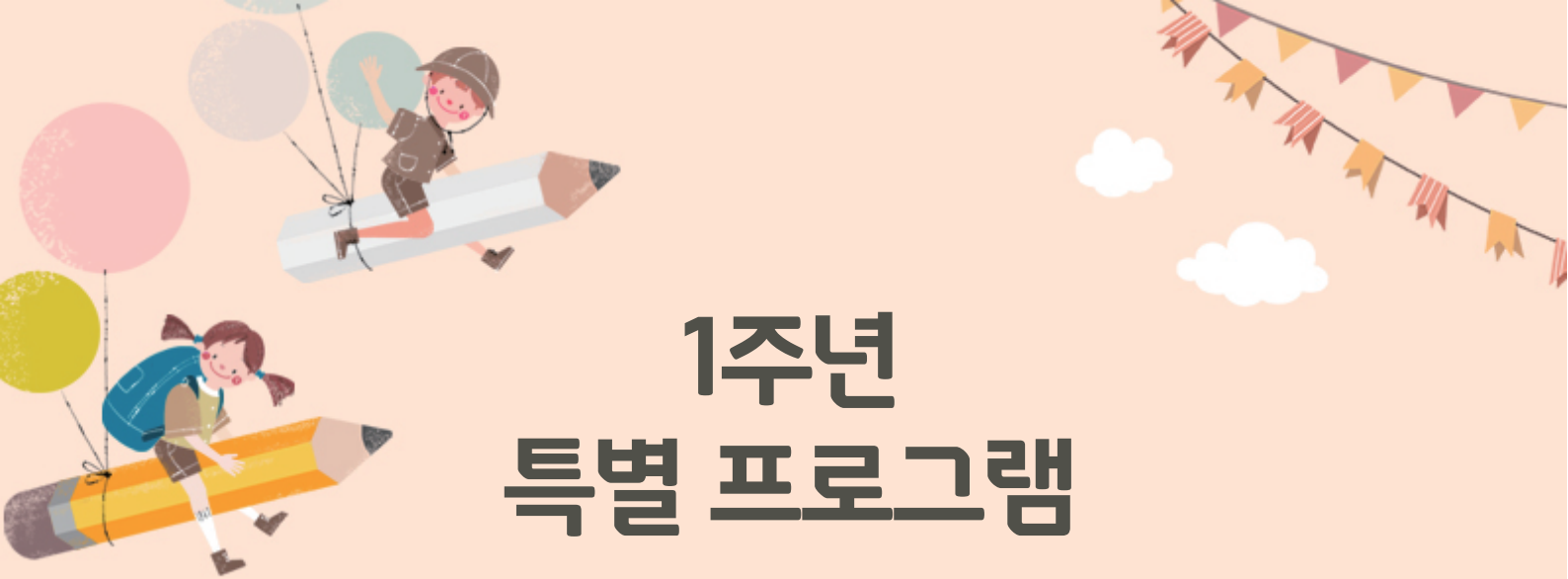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구촌 불공정한 거래의 실상, 공정무역의 역사, 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폭넓게 알려주는 교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을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나아가 역사적인 배경까지 반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이야기를 통해서 공정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얻는 계기를 만들어보세요.







# 1주년 특별 프로그램



선선한 바람이 도서관 이곳저곳을 다니며 뽀뽀질에 지친 아이들의 이마를 식히고,  
초록에 지쳐 단풍든 이파리들을 이리저리 뒹굴게 합니다.  
가을 어느 날, 누구나 시인이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날, 도서관이 첫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분주하게, 설렘 가득하고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도서관 돌담은 아이들의 손길이 더해져 바다가 되었고  
행하던 바닥은 소라, 문어, 전복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 꿈바당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곡을 공연하는 아이들의 긴장하는 표정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온가족이 함께 콘서트를 즐기며 꿈바당의 1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었던 하루였습니다.

‘꿈바당에서 만나요 유진!!’





# 도서관과 사람



개관 1주년 “와랑와랑 책바당 돌잔치”가 지나고 며칠 뒤 홍서현(9살) 어린이와 10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문학과 음악을 접목시킨 ‘글을 노래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서현이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하 꿈):** 안녕하세요, 10월 도서관 주제가 돌이에요. 도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돌잔치의 돌이기도 해요. 서현이는 돌잔치에 왔어요?

**서현:** 네, 토요일에 와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는 공연을 했어요.

**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공연인데, 떨리진 않았어요?

**서현:** 떨렸어요. 그래도 직접 만든 노래를 불러서 엄청 뿌듯했어요.

**꿈:** 노래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서현:** 글을 노래하다' 인데 친구들이랑 시도 쓰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직접 만들었어요.

**꿈:** 공연한 것 말고 돌잔치에 체험한 것 있나요?

**서현:** 향기 나는 볼펜을 만들었어요.

**꿈:** 앞으로 꿈바당이 어떤 도서관이 되면 좋을까요?

**서현:** 더 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만들기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꿈:** 새로 생긴 놀이터는 맘에 들어요?

**서현:** 네~ 그 중에서 방방이 제일 재미있어요.

**꿈:** 9월에 가온이란 친구가 10월에 인터뷰할 친구에게 좋아하는 책이 뭔지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좋아하는 책 있나요?

**서현:** 펼칠 수 있는 팝업북을 좋아해요. 팝업북 코너에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꿈:** 다음 달에도 다른 어린이와 인터뷰를 할 건데요, 그 친구한테 궁금한 것 있어요?

**서현:** 좋아하는 동화책이 뭔지 물어봐주세요.

**꿈:** 도서관 생일은 10월 14일인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도서관 생일에 축하하러 와 줄 건가요?

**서현:** 네!







# 노래제목 꿈바당에서 만나요

'꿈바당친구들' 작사·작곡

내가 좋아하는 꿈바당 책바당  
우리의 아지트 꿈바당 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린이 도서관  
동화책도 많고 역사책도 재밌어  
책은 우리 장난감  
도서관은 내 마음이 뛰노는 놀이터  
꿈바당에 풍덩! 책바당에 풍덩!  
언제나 즐거운 우리들의 놀이터  
꿈바당에서 만나요!



내가 좋아하는 꿈바당 책바당  
친구들과 뛰노는 놀이바당이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어린이 도서관  
만화책도 많고 과학책도 재밌어  
책은 우리의 친구  
도서관은 생각이 넓어지는 운동장  
꿈바당에 풍덩! 책바당에 풍덩!  
언제나 즐거운 우리들의 놀이터





# 공감,공간



## 제주의 도서관 봉아름작은도서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변영로 503  
전화: 064-751-0503  
휴관일: 화요일, 법정공휴일

오름으로 둘러싸인 봉개마을 중심에 위치한 봉아름작은도서관은 2017년 4월 2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명칭은 봉개동의 자연마을 이름인 봉아름에서 따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도서관 벽에 그림을 직접 그렸으며, '봉개마을 아이들'이라는 동아리에서 봉개마을의 숨은 이야기, 사라져가는 제주옛것을 찾아 기록하여 '봉개에서 살아가기'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이 꽂혀 있는 도서관이라면 매일같이 오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봉개를 둘러싼 오름들처럼 어린이들을 품은 아늑한 곳, 봉아름작은도서관입니다.



## 제주의 책방 북앤북스

주소: 제주시 연북로 25  
전화: 064-725-7279

2010년 문을 연 북앤북스는 제주의 토착 서점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베스트셀러 코너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제주와 역대대통령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과 2만 원 이상 구매 시 도내 무료배송 서비스 등 대형 인터넷 서점에 맞서, 고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매장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하굣길, 서점에 들러 소설 코너를 기웃거리는 중학생들의 대화가 궁금해집니다. 서가 사이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책과 함께하는 공간의 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북앤북스입니다.





# 시시쿨쿨뉴스

## 와랑와랑 책바당 돌잔치

2018년 10월 1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와랑와랑 책바당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부분으로 나누어 도서관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키 큰 나무들이 무대배경이 된 멋진 야외 공연장이 완성되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가수 강허달림의 '섬집아이'으로 시작된 식전 공연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원장님 및 내빈들의 축하인사로 이어졌습니다. 기념식 축하공연의 일환으로 꿈바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직접 작사·작곡한 '꿈바당에서 만나요'를 불렀으며, (사)국악연희단하나아트에서 화려한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세미나실에서는 네이버웹툰에서 '노곤하개'를 연재중인 홍끼작가와 '커다란방구'의 강경수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친구들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인기 작가들이라 금방 강좌가 마감되었는데요, 강의 역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주그림책연구회, 색동회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동네책방 오줌폭탄, 시웃서점, 청소년 동아리 타요,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탐나는5060 자원봉사자분들이 체험부스를 맡아 수고해 주셔서 드넓은 잔디밭은 어린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싱잉앤크, 소금인형, 마임극단 동심이 꾸며준 가족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조용해야하는 도서관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주년을 축하하며, 도지사 관사가 도서관으로 바뀌기까지의 스토리를 '꿈냥의 바닷여행'이라는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발간을 기념하는 낭독공연과 전시가 동시에 열렸으며, 오신 분들께 그림책을 나누어 드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년, 사계절을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행복했습니다.

노래는 결코 끝나지 않았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생길 거야."  
<The Flax> 안데르센동화전집

